

광주시, 빈집 788채 매입·철거·리모델링

안전사고·범죄 온상지 우려·주변환경 악화유발 4개 등급으로 분류해 2024년까지 관리·정비키로

광주시가 안전사고나 범죄 온상지 우려가 있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 정비에 본격 나선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지역 내 빈집 2286채의 노후·불량

상태, 위해성 등을 조사해 1등급 양호, 2등급 보통, 3등급 불량, 4등급 철거대상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빈집 정비사업 시행방법과 시기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구체화했다.

우선,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매입 32채 ▲철거 149채 ▲안전조치 546채 ▲리모델링 61채 등 모두 788채를 자치구와 함께 관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1~2등급 주택은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3등급 주택은 안전조치를 하고, 4등급은 철거할 예정이다.
올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은 활용계

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21억 원을 투입해 모두 86채(매입 4, 철거 35, 안전조치 39, 리모델링 8)를 정비하고 ▲2022년 210채 ▲2023년 200채 ▲2024년 292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빈집을 쾌적한 도시재생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동구, 인문산책길 안내판 제막식 개최

광주 동구는 인문자원을 토대로 조성한 ‘동구 인문산책길’ 내 역사적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일 ‘흥학관’ 터(현 광산동)에서 개최된 제막식에는 이송국 부구청장을 비롯해 흥학관 설립자인 최명구의 후손인 최기성씨,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이대순 조선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인문산책길 주민문화해설사가 함께 했다.
구는 인문산책길 주요자원 35곳 중 ‘흥학관’(동구 광산동 100번지 일대), ‘춘목암’(황금동, 광주미곡문화원), ‘농장다리’(지산동 현 동지교) 등 3곳에 우선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구, 불법광고물 발 붙일 곳 없다...365일단속반 운영

광주 서구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365일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현수막, 풍선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우선, 단속인력 확충하여 평일 2개반 8명, 휴일 2개반 7명을 편성하여 현수막, 풍선광고물, 가로등현수막과 같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1년 365일 지속적인 정비·단속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습·고질적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고발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남구, 주택 등 건물 64동 슬레이트·지붕 고친다

광주 남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비 2억 3,424만원을 투입해 주택과 비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가정의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나선다.
4일 남구에 따르면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 접수가 오는 26일까지 관내 16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건축물 소유자이며, 가족 및 임차인 등 거주자와 공사업자 등이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북구, 한국판 뉴딜 연계 ‘북구형 뉴딜’ 본격 추진

광주 북구가 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판 뉴딜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북구형 뉴딜’ 계획을 구체화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올해부터 중앙부처별로 직접 추진사업과 지역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북구는 보고회에서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수립하고 24건을 대응 사업으로 정했다.

광산구, 봄 활력·시민위로 담은 행복 문구 공모

광주 광산구가 ‘광산 행복돋움판’ 문안 시민공모를 19일까지 진행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핵심 구정목표인 ‘시민행복’을 브랜드화하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전하는 행복돋움판 문구를 개발해, 세 차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게시했다.
올해부터는 이 행복돋움판을 시민의 마음을 담고 소통하는 창구로 확장한다는 취지로 시민공모에 나선 것.
이번 공모 주제는 봄의 생명력과 활력, 위로와 소망을 담은 글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와 기록적 폭우 등 어려움을 이겨낸 시민을 위로하는 문안이 우대된다.
김정환기자

광주 전통문화관, 코로나 딛고 무형문화 산실로 거듭나

토요상설공연·무등풍류던 등 비대면까지 확대



광주 전통문화관 공연 모습.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지역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전용시설인 전통문화관이 코로나 19의 높은 파고를 딛고 무형문화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시는 4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토요상설공연, 무등풍류던, 전통문화예술강좌와 체험, 무등울림축제 등 전통문화관의 올해 사업들을 비대면까지 확대해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든 행사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생중계하고, 주요 내용은 온라인 영상으로 업데이트해 시민 누구나 전통문화관 행사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생생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토요상설공연은 판소리와 산조, 창작국악, 연희와 무용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예술가와 단체들이 특화된 기량을 펼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전통문화예술의 융복합 프로그램인 무등풍류던은 월 1회 정기별로 진행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함께 명절과 절기, 관혼상제 등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 세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보존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으로, 2월 대표로써 문을 열 예정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 강좌, 체험, 전시 프로그램도 풍부하게 진행한다.

주중에 만나는 전통문화예술강좌는 무형문화재가 직접 전수하는 대시민 교육으로 상·하반기와 특별강좌로, 판소리, 가야금병창, 전통음식, 태화 등을 주제로 다음달에 상반기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통문화예술체험은 대상별 및

층형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특히 7, 8월에는 전시체험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해 무등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전통문화 향유공간의 폭을 확장시켜 줄 계획이다.

10월 무등울림 축제는 무등산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상생 문화예술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무등산권 문화예술 인문사와 지역 문화자산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조명했던 특별기획 프로그램은 2019년 오방 최홍종과 석아 최원순, 의재 허백련, 지난해 오지호 활동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 무형문화재를 전파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면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무형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무형문화재 연계 사업들의 유튜브 구독이벤트와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운영 등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중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고품격 전통문화사업들을 전개해 지역의 전통문화 산실로 구축하겠다”며 “특히 SNS와 유튜브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치유의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도, 친환경비료 53만2000t 농가 공급

토양개량제 9만·유기질비료 44만2000t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323억원을 들여 친환경비료 53만2000t을 농가에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비료 공급은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토양개량제 9만과 유기질비료 44만2000t 등을 작물별 파종시기에 따라 공급한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역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준다.

유기질비료는 농립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토양환경 보전에 도움이 된다.

혼합유기질·혼합유박·유기복합비료는 20kg당 1000원, 가족분퇴비·퇴비는 등급별 700원에서 1000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친환경비료가 적기에 살포되도록 현장 지도하고, 고품질 비료 생산을 위한 친환경비료 유통·품질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작물별 생산 시기에 맞춰 고품질 친환경비료를 공급하고 품질·유통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농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어가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납득에서 재민안 슬로러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1배 240,833원 1.7배 125,531원 2.1배 79,147원 2.7배 48,103원 5.3배 26,697원

고소득층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